

박정희 대통령 특명 수임... ‘짧은 인생 영원 조국에’ 바치다

천하위공의 길 박태준의 애국정신과 일류주의

12월 13일, 박태준 명예회장이 타계한 지 3주기를 맞는다.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그는 이 좌우명처럼 일생을 조국에 바치며 불같이 살다가 우리 곁을 떠났다. 군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교육자로서, 정치인으로 서 치열하게 살다 간 박 명예회장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남겼다. 시대가 암울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 다 찾는 선각자로서, 위대한 경제인으로서 애국애민의 삶을 살다 간 박태준 명예회장을 기리며 이 글을 게재 한다.

〈편집실〉

1953년 여름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멈추는 즈 음에 말짱히 살아남은 한 청년장교가 자신의 영 혼에다 조각칼로 파듯이 좌우명을 새겼다.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절대적 절망은 없다’. 1977 년 5월 조업과 건설을 동시에 감당해 나가는 영 일만 포항제철에서 절박한 목소리로 외치는 한 아버지가 있었다.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순교자적으로 희생하는 세대다.” 바로 그가 박태 준이었다. 그리고 그는 도무지 낯을 줄 모르는 그 좌우명, 그 신념으로 삶의 길을 개척하면서 다른 쪽으로 벗어나지 않는 일생을 완수했다.

시대적 고난과 천하위공의 손거울

고난은 인간의 성격을 창조한다. 도전형과 체 념형이다. 문제적 인간은 도전형이다. 도전형은 다시 선(善)과 악(惡)으로 갈린다. 만물라와 히를 러는 서로 대척점에 위치한다. 공통점은 도전의 지다. 박태준은 고난에 도전하며 선으로 나아간 전형이다.

1927년 동해안 최남단 갯마을에서 태어난 박 태준은 6세 때 부친이 생업을 잡고 있던 일본으 로 건너갔다. 유소년시절은 몸을 키우고 지식을 늘리는 그만큼 ‘조센징’이라 불리는 쓰라린 모욕 에 시달려야 했다. 모욕이 그에게는 의식의 씨앗 이었다. 그 씨앗은 무엇이든지 일등을 해야 차별 을 될 당한다는 방어 의식과 저항 의식으로 발아 하여 시나브로 애국정신과 일류의식으로 성장한 다. 광복이 되어 와세다대 기계공학과를 중퇴하 고 가족과 함께 귀향해서 군문으로 들어설 때, 그 는 부모 앞에 뜻을 밝힌다. “건국에는 건군이 있 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되찾은 나라를 위해

로젝트에 김숙이 관여하던 박태준은 1967년 가 음에, 마치 5000년 대물림의 절대만공 극복을 목 메게 기다려온 우리 역사가 어떤 필연에 의해 성 사시킨 일처럼, 종합제철 대임을 맡는다. 이때 박 태준의 정신세계는 ‘천하위공(天下爲公)’으로 확 장돼 있었다. 식민지, 분단, 혼돈, 전쟁, 재분단, 폐허, 부패, 빈곤. 이것들이 불혹(不惑) 박태준의 나이테였다. 그러나 그는 저주받은 것 같은 나라 를 체념해버리는 절망과 허무, 퇴폐와 좌절로 미 고르리지 않았다. 박정희와 어깨를 견고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미래의 나이테를 희망과 풍 요의 목록으로 채우려는 그의 도전의지에서 천 하위공은 정신적 기반이었다.

천하위공이란 ‘천하가 모두 공적인 것이 된다’, ‘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된다’는 뜻이다. 『예기(禮記)』예운(禮運)편에 나오는 말이다. 중국 신해혁명을 이끈 쑨원(孫文)이 소중히 간직했다. 박태준이 “교육은 천하의 공업(公業)”이라 선언 한 때는 1978년 9월이다. 하지만 그는 대한중석 사장(1965~1967)으로서 남몰래 대학 설립을 꿈 꾀 때부터 천하위공을 가슴에 보듬고 있었다. 요 즘 한국사회는 복지씨름이 한창인데, 포스코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선구적으로 다 실행한 사원주택제도, 장학제도, 복지제도, 녹화제도 그 리고 학교들, 포스텍, 방사광가속기 등은 천하위 공을 실천한 그의 모범 사례들이다.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짚어냈다. 인 간사회는 때로 그 손을 혐오도 하지만 시장체제의 쇄신을 관철하면서 자본주의를 선포하고 있다. 기존 자본주의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불만이 팽배 할 때는 전면에다 긴 거울을 세운다. 거울에 비친



“조상의 혈세로 짓는 제철소다. 실패하면 우항우 해서 영일만에 빠져 죽자. 제철보국을 우리 인생 의 신조로 삼자.” 그의 호소는 가슴과 가슴을 타고 번져나갔다. 조상의 혈세는 민족주의를 자극 했다. 우항우는 애국주의를 고양했다. 둘은 제철 보국 이념에 자양분이 되었다.

어떤 애국인가? 제철보국에 담은 박태준의 그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간단 한 자료가 있다. 1971년 4월, 첫 쇳물이 나오려면 아직 26개월이나 더 일해야 하는 그때, 사보 《쇳 물》 창간호가 나왔다. 뒤표지, 거기, 그의 외마디 외침이 만년필로 적혀 있다. “무엇이든지 첫째가 됩시다!” 고로를 짓기도 전에 그러나 임직원들 에게 세계 일등을 요구하고 독려한 박태준은 애국 심과 일류의식을 갖춘 그들과 더불어 초심의 맹 세 그대로 25년 만에 포스코를 세계일류로 우뚝 세운다. 포스텍(포항공대)도 그렇게 만든다. 그 의 애국이란 일류국가에 도달하는 것, 포스코나 포스텍이 보여주듯 총체적인 일류국가에 도달하 는 것이었다.

1970년대 일본은 절강뿐 아니라 총체적인 일 류국가였다. 그때 일본 철강사들의 지도를 받는 포스코로서는 일본을 넘어야 세계일류에 올라설 수 있었다. ‘조센징’이란 차별과 모욕이 의식의 씨앗이 되었던 박태준에게 그것은 물려설 수 없는 과제였다. 극일을 못하면 포스코가 세계일류 반 열에 오를 수 없고, 이것이 안 되면 조국은 일류국 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엄청난 장벽 앞에서 그는 침착하고 치밀하고 집요했다. 명확한 전략이 있 었다. 3단계 일본관(日本觀)을 펴려했다. 먼저 일 본을 알아야 한다(知日), 그래서 일본을 활용해야 한다(用日), 그리고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克日). 지일-용일-극일, 이 전략이었다. 상대도 알아챘 다. 일본 최강수 총리를 지낸 나가소네는 “일본에 서 하나라도 더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져가 려는 박 선생의 애국심”에 감동했고, 미쓰비시상 사 회장을 지낸 미우라 료헤이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위해 한국을 연구하는 것처럼 박 회장은 일 본을 연구하는 전략가”라고 간파했다. 포스코에 서 극일 목표를 성취하여 세계일류에 도달한 박 태준.

그래서 평전 ‘박태준을 쓴 이대환 작가는 어떻 게 평가한다. <생존의 길을 찾아 일본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뒤를 좇아 현해탄을 건너갔던 수많은 식민지 아이들 가운데, 사춘기를 벗어난 무렵에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신생독 립국의 어른으로 성장한 다음, 유소년기에 어쩔 수 없이 익혔던 일본어와 일본문화로써 가장 훌륭하고 가장 탁월하게 조국에 이바지한 인물은 박태준이다. 신학문을 배우려 일본유학을 했던 청년학도를 포함시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 이다.>

박태준의 비원을 풀어줄 이들은?

박정희 통치시대에 한국근대화는 마치 산업화 와 민주화가 동일한 역사 무대에 공존할 수 없다 는 것처럼 반목과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모순 시대였다. 그러나 교회(古稀)의 박태준은 모순 시대가 아니라 ‘상보(相補) 시대’였다는 견해에 동의했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대립하는 가운데 상보하면서 함께 발전하고 함께 성장했다는 것 이다. 그래서 그는 1997년 늦가를 외환위기사태 속에서 펼쳐진 대통령선거를 통해 “산업화세력 과 민주화세력의 화해, 영남과 호남의 화합”을 외 칠 수 있었다. 그것은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에 이바지하고 그해 12월 5일 김대중 후보를 박 정희 대통령 생가로 안내하여 두 지도자에게 늦 어진 화해 자리를 마련해준다. 또한 그는 “독재의 사슬도 기억케 하고, 빈곤의 사슬도 기억케 하라” 는 가르침도 남긴다.

2010년 1월, 83세 박태준. 하노이국립대학 강 연에서 짜랑짜랑 일갈했다. “한 나라가 일어서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도층이 부패 하지 않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기 경험과 실천의 지혜였다. 그는 천하위공에 근 거한 애국과 일류주의로 헤쳐 나아갔다. 고투의 길, 그러나 공동체의 영광을 창조하는 길이었다. 자연의 섭리가 그에게 종점을 알려주는 무렵부 터 동시대인들이 이삼전심 뒤늦게 어떤 진실을 깨달은 것처럼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늙은 영웅 은 영혼에 맺힌 말을 미처 세상에 다 내놓지 못했 다. 눈가에 이슬로 맺히던 그의 말을 가슴속에 구 슬로 간직할 이가 없지는 않다.

포스코 대성공에 바친 박태준의 공로가 아무리 적어도 1퍼센트는 될 것이라고 인정한 국가가 그에게 포스코 주식에서 공로주로 1퍼센트만 줬다 라면, 그는 수천억 원을 소유한 재벌급 대우호로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공로주를 바라지도 않았고 한 주도 받지 않았다. 포스코가 늘 세계일 류이기를 희원할 따름이었다.

박태준은 팔순을 넘어서도 통일의 실마리를 잡 으려 했다. 원산 어디쯤에 종합제철소를 포스코 자금과 기술로 짓고 싶었다. “기술자야 인민군대 서 차출해 포항, 광양에 데려다가 훈련시켜야지. 자금? 포스코 신인도면 은행이 줄을 서. 왜 평양 이 문을 못 여냐? 내가 지팡이라도 짚고 갈 건데. 제철소뿐인가? 근대화 교과서가 다 있어. 여기, 여기 말아야.” 으르른 검지로 이마를 쿡쿡 찌르는 노인이 아이처럼 흥분했다.

천하위공, 그 머나먼 길을 애국정신·일류주의 두 발로 사심 없이 완주한 노인의 염원이 아직은 이 땅 에 비원(悲願)으로 남아 있다. 산업화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 영남과 호남의 정치적 화합도 그렇다. 이 비원들을 진실로 받들어 실현에 앞장서야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자료=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지일·용일·극일 몸소 실천... 고난에 도전하며 삶의 길 개척

1965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특명따라 종합제철 프로젝트 주도

“무엇이든 첫째 되자”... 고로 짓기도 전에 ‘세계 일등’ 독려

통일 실마리 잡으려 팔순 넘어서도 북한에 제철소 건설 꿈

살겠다는 도전의지를 응축한 말이었다. 육사 6기 생, 이 태형에서 그는 십여 년 뒤부터 필생의 정신 적 동반자가 되는 스승과 만난다. 열 살 손위 박정 희다.

6·25전쟁을 맞아 박태준은 철원에서 서울까지 밀리는 사나흘 동안에 동료 중대장 12명 중 10명 을 잃은 구사일생 중대장으로서 포항까지 후퇴했 다가 거꾸로 청진까지 복진하건만 중공군에 되밀 려 1·4후퇴 일원이 된다. 휴전 직후에는 육군대학 을 수석으로 졸업한다. 당시 군대는 부패했다. 그 러나 그는 ‘팔각발이로 이름난 대령’이었다. 일절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았다. 용납하지도 않았다. 그 소문이 박정희의 고막을 건드리고, 거사를 획책 하는 그가 1960년 부산군수기지사령부 사령관으 로 부임하면서 박태준을 인사참모로 발탁한다. 무 수한 술잔에 시대적 고뇌를 담은 나날을, 그렇게 함께한 여섯 달 남짓. 부산 시절이 두 사람을 완전 한 신뢰와 조국근대화의 순정한 이념으로 단단히 묶여준다.

5·16정변에서 상공담당 최고위원을 역임하고 1965년부터 박정희의 특명에 따라 종합제철 프

자본주의의 전신을 살피며 수술 방법을 궁구하는 것이다. 그 거울의 이름은 근대 서양은 ‘사회주의’ 라 지었다. 그러나 동양에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청동으로 만든 ‘천하위공’ 손거울이 있었다. 인간 의 선의(善意)를 신뢰하고 선양(勸揚)하는, 깨지지 않는 그 손거울을 박태준은 영혼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박태준의 일본관과 일류주의

포스코에도 절명의 위기가 막 한 번 있었다. 1969년 2월, KISA(한국에 종합제철을 짓겠다는 서방 5개국 8개사 컨소시엄)가 차관제공 약속을 저버리기로 결정한 때였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의 비정한 법칙에 따라 갓 태어난 포스코는 사라져 야 했지만, 대일청구권자금 전용에 대한 착상과 제가, 박태준과 박정희의 그 합심이 영일만 모래 발판에 아끼무렵으로 남을 뻔했던 포스코를 신의 한 수처럼 회생시켰다.

일제식민지 배상금이 포스코의 종잣돈이다. 포항 1기를 착공하는 박태준에게 그것은 모든 구 성원이 꼭 무장해야 하는 칼날 같은 윤리였다.



박정희 대통령께 임무완수를 보고하는 박태준 회장

1992년 10월 3일 당시 박태준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서 ‘임무완수’를 보고하고 있다. 4반세기 (1968.4~1992.10) 제철대역사 중군 다음날인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서 박 회장은 “각하의 명을 받아 25년 만에 제철일류국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각하의 영전에 보고합니다”라고 했다.

박태준 리더십

▶군대를 찾을 땐 장교로, 기업인을 찾을 땐 기업인으로

한국이 군대를 필요로 했을 때 귀하는 장교로 투신 했다. 한국이 현대경제를 위해 기업인을 찾았을 때 귀하는 기업인이 되었다. 한국이 미래의 비전을 필 요로 할 때 귀하는 정치인이 되었다. 한국에 봉사하 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귀하의 삶에는 끊임없는 지 상명령이었다. -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사업보국 길 함께 걷는 길벗. 지금까지 22년 동안 박태준 회장과 나는 사업보국이라는 길을 함

께 걷는 길벗이었다. 신앙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그는 서슴없이 ‘철’이라고 대답한다. 군인의 기와 기업인의 혼을 가진 사람이다. 경영에 관한 한 불 패의 명장이다. 우리 풍토에서 박 회장이야말로 후세의 경영자들을 위한 삶에 있는 교재로서 귀 한 존재다.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박태준의 신념·정의감 ‘대한협력 성공’ 이끌어

박태준은 진정한 한국의 애국자다. 냉철한 판단력, 부 동의 신념과 정의감, 깊은 사고력을 겸비한 그의 인품 이 일본의 대한협력력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

▶박태준의 노력이 내 보고서를 틀리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도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에 제출했 던 나의 보고서가 옳다고 믿는다. 다만 박태준 회장 이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하여 나의 보고서를 틀리 게 만든 것이다. 나는 포스코의 성공은 지도자의 끈 질긴 노력을 바탕으로 설비구매의 효율성, 낮은 생 산원가, 인력개발, 건설기간 단축을 실현한 결과라 고 생각한다. -자메 전 세계은행 아시아지역 담당자

▶박태준은 끈기있는 사람 박태준은 매우 끈기 있 는 사람이다. 세계의 모든 철강인이 포철이 성공리 에 건설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그는 나를 꾸준히 설득해 우리가 포항 1기 공사에 큰 역 할을 하도록 했다.

-헬무트 하세 전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총재

박태준 어록

“조상의 혈세로 짓는 제철소다 실패하면 우항우해서 빠져 죽자”

▶제철소는 선조들의 피값으로 짓는 것 “이제철소 는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조상의 피값으 로 짓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 니 목숨 걸고 일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우항우해 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1969년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 건설에 나서면서>

▶제철보국 “철은 산업의 쌀입니다. 쌀이 생명과 성장의 근원이듯, 철은 모든 산업의 기초소재입니 다. 따라서 양질의 철을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해 국 부를 증대시키고,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복 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것이 곧 제철보국입 니다.”

<1978년 3월 28일 연수원 특강>

▶10년 후를 그려라 “무엇을 이루려면 최소 10년 은 걸리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아직 10년 후의 자기 모습이 모호한 사람은 진지하게 10년 후의 청사진을 구워내야만 합니다. 인생은 집 짓는 것과 같아서 청사 진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주춧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1981년 4월 10일 중앙일보 기고>

▶자원은 유한, 창이는 무한 “자본도 기술도 경험 도 없었다는 3무(三無)가 포스코의 태생 조건이라 고 말해왔지만, 원료도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실제 로 포스코는 4무의 약조건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자원은 유한, 창이는 무한’이란 슬로건이 포스코의 앞길을 밝혀주는 햇불이었습니 다.”

<2008년 포스코 창립 40주년 인사말>

▶박정희 대통령 일념으로 포철 탄생 “고 박정희 대통 령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철소가 있어야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분의 일념과 기획과 의지에 의 해 포항제철이 탄생했고, 그분은 저를 믿고 완전히 맡겼을 뿐만 아니라 온갖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도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망 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1년 9월 19일 퇴직 임직원을 위한 문화행사에서>